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계율의 형식과 구원의 윤리

김 호 은*

요약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자유의 문』에 나타난 신(神)의 형상 및 계율의 구조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이청준이 지향한 종교적 세계관과 주체의 윤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청준에게서 신은 인류가 평안과 안식의 궁극적 보증으로서 상징해 온 전통적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반쪽' 혹은 '인색한 구원자' 등—으로 제시된다. 그의 이러한 특징적 시선은 신의 범형(範型)으로서의 계율을 무조건적 선(善)이라는 관습적 이해에서 벗어나 그 내부에 어떤 균열과 모순을 품은 증상적 형식으로 새롭게 조명하게 한다.

위의 세 작품에 나타난 신의 형식(계율)은 각각 〈네 이웃을 사랑하라〉, 〈비밀의 형식을 고수하라〉, 〈스스로를 익명화하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를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적 지점들이 드러나는바, 그것은 첫째, 순수 명령으로서의 계율이 사실상 법의 엄격함을 넘어 한층 더 잔인한 층위에 있다는 것, 둘째, 계율은 때로 어떤 결핍이나 공백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베일로서 작동한다는 것, 셋째, 주체의 실천 여부와는 무관하게 계율은 애초부터 그 형식 자체에 주체의 필연적 실패의 지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청준은 계율의 절대적 형식 속에 숨은 이 같은 부정성의 지점을 통해 자신의 종교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틈의 지점을 더 이상 신이 아닌 인간 각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윤리적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특히 『자유의 문』의 주영섭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바, 그것은 주체가 단순히 보편적인 것의 대행자 *agent*가 아니라 그것의 동인 *agens*이 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주영섭의 이 같은 역할과 의지는, 신의 불가해성과 인간의 윤리적 자각이 교차하는 경계 위에서 이청준이 지향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한 주체 및 윤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한글 주제어: 이청준, 신, 계율, 주체, 증상, 동인, 윤리

목차

1. 반쪽 혹은 수수께끼로서의 신(神)
2. 신의 범형(範型)으로서의 계율
3. 계율에 숨은 증상적 지점들
4. 윤리적 동인(動因)으로서의 주체
5. 나가며

1. 반쪽 혹은 수수께끼로서의 신(神)

이청준은 몇몇 지면을 통해 보통의 한 인간으로서 헤아려 본 신(神)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자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신의 모습은 제게 한번도 완성되어 보인 적이 없었”¹⁾ 거니와, “생명 있는 자 누구나 그것을 마저 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 쳐온 터이지만, 보이는 것은 아직도 그 전체가 아닌 반쪽의 모습 뿐”²⁾인즉, “그 보이지 않는 반쪽의 모습은 실상 인간들 각자가 그의 삶 속에서 스스로 찾아내어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이다.²⁾ 현실 속 인간들의 상호작용을 초월하여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이자 사실상 인격화된 대타자이기도 한 이 신의 형상을 끝내 ‘반쪽’으로만 제시한 이청준의 이 같은 표현은 신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 불가해성을 염두에 둔 것일 터, 뒤이어 그가 이에 대한 인간 각자의 감당에의 노력을 당부하며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바

1) 이청준, 「노거목과의 대화」(1984), 『시간의 문』, 열림원, 2000, 261-262면.

2) 이청준,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1-머릿그림」(1984),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열림원, 2008, 27면.

로 ‘문학³⁾이 그러한 인식과 실천의 한 방법이였음을 밝힌 것은 신에 대한 라캉의 다음 언급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치명적인 수수께끼”와도 같은 신의 “이 심연의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 신을 깨울 필요는 없다. 그것은 모든 인간존재 안에 현존한다.”⁴⁾

이제껏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보여준 사람도 없었던 썸”⁵⁾인 신의 나머지 반쪽, 그리고 오랫동안 이에 이름을 붙이거나 모습을 짓는 방식으로 이 베일 너머의 지점을 구체화함으로써 “자기 구원의 징표를 보다 분명하게 보고자 갈망”⁶⁾해온 인간들 각자의 애타는 시선, 이 시선을 신이 아닌 인간 자신의 “열심스런 일상의 삶”⁷⁾으로 거두어들여 그 삶 속에서 나머지를 완성해나갈 것을 요청하는 이청준의 이러한 언급은, 신을 향한 모든 물음의 답은 결국 인간존재 안에 현존한다는 라캉의 지적과 더불어 인류가 포편적으로 지녀온 너머의 존재로서의 신에 대한 관점 및 현실 속 인간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책임의 자세를 개괄한다.

그러나 이 글이 이청준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하여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있다. 그것은 이청준이 그동안의 인류 및 종교가 당연하게 상정해 온 현세 너머의 물자체(物自體, Ding an sich)로서의 신 혹은 그 도저한 불가해성의 영역을 그저 너머의 것으로 두지 않고 인간 각자의 실제적 삶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와 이를 윤리적인 차원에서 되짚고 있는 지점으로, 이는 요컨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

3) 이청준은 자신의 문학에 대한 생각을 ‘노거목’과의 대화의 형식을 빌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신의 모습과 이름이 너무 인격화되다 보니 저는 그의 섭리에 대한 신뢰보다 오히려 그 권능과 역사의 임의성에 대한 두려움만 커갑니다. ... 그래 문학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이란 어떤 뜻에서는 신과의 등돌림에서 시작하여 인간 자신의 능력과 책임 안에서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감당해나가려는 인식과 실천의 방법이니깐요.” (『노거목과의 대화』, 앞의 책, 262면)

4)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15, 66면.

5) 이청준,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1-머릿그림」, 앞의 책, 27면.

6) 이청준, 「노거목과의 대화」, 앞의 책, 261면.

7) 이청준, 「노거목과의 대화」, 앞의 책, 275면.

속에 애를 먹게 하는 가위눌림의 가장 무서운 그림으로 다름 아닌 신의 모습을 꼽고 있는 데서부터 짚어볼 수 있다.

그 반쪽 모습만 보이고 전체가 보이지 않아 공포 속에 애를 먹는 가위눌림의 가장 무서운 그림은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체자이신 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

... 설잠 속의 그것처럼 반쪽밖에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 나머지 반쪽의 모습을 아무리 찾아보려 애써도 끝내 보이지 않는 그 인색한 구원자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안간힘으로 발버둥치게 만드는 가장 두렵고 안타까운 숙명적 가위눌림 속의 그림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반쪽의 모습만을 찾아 그려온 지금까지의 인류사인즉 오히려 나 같은 무교자(無敎者)들에겐 달갑잖은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⁸⁾

이청준에게 있어 그의 삶을 온통 “주눅들린 사람”의 그것으로 만든 그 궁색스런 가난이 그러했듯⁹⁾ 신의 모습 또한 가위눌림의 갑갑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그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 혹은 신의 구체적 형식인 계율에 관한 그의 특징적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점이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 전체가 아닌 반쪽의 모습뿐”이어서 더더욱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안간힘으로 발버둥치게 만드는” “인색한 구원자”로서의 신에 대한 이청준의 가리킴은, 언제나 “절반만 말해진 것”으로서의 수수께끼가 그러하듯 주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대답”하게 하면서 “자신의 욕망의 운명을 쓸 것”을 유인하는 신의 절대적 심연에 대한 라캉의 지적¹⁰⁾과 맞닿아있느바, 이렇듯 이청준에

8) 이청준,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1-머릿그림」, 앞의 책, 27면.

9) 이청준, 「전짓불 앞의 방백-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2」(1988),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앞의 책, 32면. 이청준은 세상에서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공포스러운 가위눌림의 그림으로 신의 모습 외에 또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이다.

게서 반쪽 혹은 수수께끼로 그려지고 있는 신의 모습은 인류가 전통적으로 그려온 구원과 안식의 궁극적 보증으로서의 신의 모습과는 극명히 대조되기 때문이다.

이청준의 이러한 특징적 세계관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제껏 절대적 진리의 영역으로 간주해 오던 것을 다시금 윤리적 차원으로 끄집어내어 이를 삶의 실제 속에서 되새겨보는 각별한 시선에서 비롯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청준의 이 같은 새김질, 그러니까 그가 저 너머에 영구불변의 무조건적 선(善)으로서 고정돼 있던 신의 표상을 인간존재 앞에 “가장 두렵고 안타까운 숙명적 가위눌림 속의 그림”이라는 사뭇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되불러낸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하면 그것은 절반만 말해진 수수께끼처럼 유언(有言)과 무언(無言) 사이에 자리한 신의 존재 방식이 주체에게 가하는 “두려움과 무거운 답답증”¹¹⁾의 지점, 혹은 신적 계율이라는 순수 형식 안에 은밀하게 서린 어떤 “잔인함의 냄새”¹²⁾를 이청준이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가령 “슬하에 줄줄이 8남매를 둔 장로님” 일화¹³⁾는 이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참조점이 된다.

“8남매를 거느린 가장 노릇”에 쫓겨 “안식일의 계율”을 소홀히 하고 들일을 나간 장로님은, “주님의 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는 젊은 목사님의 말씀 앞에 “죄인처럼 찢찢매며”

10)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역,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 b, 2008, 253면. 덧붙여 주판치치는 이 ‘절반’의 형식으로서의 ‘수수께끼’에 대해 라캉의 다음 책을 참고하고 있다. (Jacques Lacan, *Le Séminaire, livre XVII, L'Envers de la psychanalyse*, Paris: Seuil, 1991, p. 39)

11) 이청준,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1-머릿그림」, 앞의 책, 28면.

12)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역, 『도덕의 계보』, 아카넷, 2021, 111면. 니체는 칸트의 윤리학에 대해, “실행하기 어려운 것을 실행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잔인함의 철학”임을 지적한다. 정언명령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니체의 이러한 시각은, 신적 계율을 종교적 측면이 아닌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 이청준의 시각과 부합한다.

13) 이청준, 「키 작은 자유인-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5」(1989),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앞의 책, 141-145면.

“자신의 허물을 빌”고 또 빈다. 모자란 제 믿음과 “주님의 역사에 눈이 어두운” 제 자신을 탓하며 말이다. 그러나 여덟 남매로 가득 들어찬 양 어깨가 너무 무거운 탓에 때로는 “입맛을 잃고 드러눕는 놈이라도 생”기질 농담 삼아 푸념하곤 하는 장로님에게 있어 이 “인심 좋은” 주님의 계율이 사실상 얼마나 무정한 법칙으로 다가왔을지, 그럼에도 이를 지켜 자기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이 오죽이나 갑갑하고 애가 타는 가위놀림이었을지는 그의 그다음 행보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계율을 지키고 모자란 살림도 별충하기 위한 한 다급한 방편으로 들쥐약을 돌려 팔았는데, 이 약이 가짜임이 드러나면서 끝내는 교회뿐 아니라 마을까지 떠나게 되고 만 것이다.

일화 속 이청준의 시선은 주님의 그 “고마운 복음”에 잔뜩 “수상”함을 표하는 쪽에 있다.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시선은 오직 “흙 묻은 손”과 “이마의 땀”으로 자신과 여덟 아이의 삶을 열심히 일구어 나가던 “그 정직한 늙은이”마저 계율 앞에 한없는 “죄인”으로 만드는 신의 그 절대적 타자성 및 초자아적인 면모에서 비롯된다. ‘너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선언한 칸트의 정언명령이 은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신의 그 무조건적인 요구로서의 계율은 어떠한 변명도 허용치 않음으로써 사실상 주체에게 “수행 불가능한 명령을 퍼붓는 작인”¹⁴⁾이자 예정된 실패에서 오는 죄의식 그 자체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화 속 젊은 목사님의 얼굴처럼 “너그럽고 인자해 보이지만” 한 신의 모습 뒤로 이청준의 수상쩍은 시선이 겨냥하고 있는 신의 정반대의 얼굴에 대한 인식은 이제껏 절대선으로 표상되던 신적 정합성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하는바, 이 글을 다음과 같은 역설적 지점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한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보여준 사람도 없었던 썸”인 신의 나머지 반쪽, “아무리 찾아보려 애써도 끝내 보이지 않”아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인간힘으로 말버

14)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인간사랑, 2007, 458-459면.

등치게 만드는” 신의 그 나머지 반쪽이란 실은 신 또는 신적 계율이라는 절대적 순수 형식 끝에 자리한 부정성의 지점이자, 따라서 결코 드러낼 수 없었을 자체의 증상적 지점이라고 말이다.

이와 같은 시각을 토대로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1985), 「비화밀교」(1985), 『자유의 문』(1989)에 나타난 신(계율)의 증상적 지점을 새롭게 들여다보고, 이와 관련한 이청준의 앞서의 언명—신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인간들 각자의 책임의 자세—이 작중 인물들에게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¹⁵⁾ 증상적 지점이란 일관성이 흐트러진 부분, 비어져 나오거나 일그러진 곳으로, 이를 살펴보는 일은 텍스트의 표면에 멈추지 않고 그 안에 축장 되어있는 또 다른 결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탐구는 기왕의 연구가 이끌어 낸 굵직한 해석들 사이에 잠재 되어있는 유의미한 지점들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될 것인바, 이는 신의 구체적 형식이자 신과 인간을 잇는 실제적 이음점으로서의 계율 및 이에 복속된 인간 주체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가장 올바른 매듭법까지를 함께 짚어보는 방식이 되리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계율과 주체 그리고 윤리를 핵심으로 한 이청준의 종교적 세계관 및 그 윤리적 방향성에 대한 고찰로 귀결될 것이다.

15) 이청준의 작품 중에는 신 또는 종교, 그리고 이와 인간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글이 위의 세 작품으로 논의의 범위를 한정된 것은, 이들 작품에서 종교나 신이 단순한 배경적 장치나 분위기적 요소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인물의 행위와 갈등 구조를 직접적으로 조직하는 핵심 원리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세 작품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맺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윤리적 갈등의 양상을 특히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밀도를 지닌다. 각각의 텍스트에서는 계율 혹은 종교적 명령이 비교적 분명한 형태로 제시되고, 이에 대해 인물들이 취하는 태도—수용·저항·왜곡—가 구체적인 사건과 서사적 긴장을 통해 드러난다. 이러한 구조는 종교적 규범이 인간 주체의 윤리적 선택과 책임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글은 종교적 형식과 윤리적 갈등이 가장 응축된 형태로 전면화되어 나타나는 위 세 작품을 중심 텍스트로 설정하였음을 밝힌다.

2. 신의 범형(範型)으로서의 계율

신으로 표상되는 너머의 세계와 인간들의 경험적 현실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하나의 매듭으로서 연계되는 일은 이미 그 자체로 어떤 비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계율은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자유의 문』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텍스트에서 이 같은 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서사적 공간을 창출한다. 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율은 인간이 신의 편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이를 공백 속으로의 내던짐이 아니라 경험 가능한 영역으로의 착륙임을 보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두 대상—신과 인간 주체—간의 특별한 서사를 불러일으키는 작인(作因)이 된다고 말이다. 계율의 이 같은 특성은 신과 인간을 중심으로 이청준의 종교적 세계관 및 인간관을 탐구해 온 이제까지의 연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온바, 위의 세 작품을 대상으로 이를 살펴보면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는, 신과 인간 간의 비극적 결렬의 원인을 전적으로 인간 주체의 결함에 두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김주연은, 신의 섭리가 결코 공의(公儀)와 충돌하지 않음을 역설하며 신을 절대적 선의 자리에 상정한 뒤, 이것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거나 왜곡하고 마는 인간의 무지(無知)를 비판함으로써 둘 사이의 파국의 원인을 인간에 둔다.¹⁶⁾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16) 김주연, 「이청준의 종교적 상상력」, 『본질과 현상』(14), 본질과 현상, 2008, 112-126면. 이러한 시각은 김주연의 다른 글에서도 반복된다. “가장 중요한 결함은, 기독교 교리에서의 용서의 강조가 ... 삶의 실재를 무시한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아내 자신의 믿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제의(祭儀)와 화해』, 『이청준론』, 김치수 외, 삼인행, 1991, 299면)

이와 동일한 맥락의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먼저 현길은, 「벌레 이야기」에서의 “아내는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인해 결국에는 “자신이 타인을 용서해 주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자기 신격화’의 착각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한다. (『구원의 실현을 위한 사랑과 용서』, 『이청준론』, 위의 책, 306-307면) 송상일은, “그녀의 용서는 복수와 동일한 기제”임을 지적하며 비극의 원인을 아내의 잘못된 용서관에 둔다. (『소설가 아담의

그야말로 미숙한 인간에 대한 신의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에서 역으로 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계율에의 실천적 행위에 관해 옹고 그를 판별할 만한 어떠한 참조점도 없이 이를 나약한 인간의 신실한 마음 하나에 오롯이 맡겨두고 있다는 점, 더욱이 이에 어긋날 경우 무한한 죄의식까지 짐 지운다는 점은 인간 주체의 미숙함을 탓하기에 앞서 신의 가혹함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위의 시각과는 반대로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신을 들여다본 경우이다. 황현산은, 인간 개개인의 “독자적 진실성을 부인”하고(『자유의 문』) “구체적인 삶과 그 생명력”마저 계율 아래 위치시키는(「비화밀교」) “교주주의의 추상적 맹목성”을 이청준이 알레고리를 통해 꼬집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⁷⁾ 이 같은 시각은 이청준의 문학관 및 세계관을 다각도로 조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축이자 이 글이 신의 증상적 지점에 주목하게 되는 바탕이 된다. 그러나 다소 굽직한 윤리적 맥락에 따라 그 부정적 측면을 짚고 있는 만큼,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신이 지닌 구조적인 특성 및 인간 주체와의 연계 방식에 대한 보다 섬세한 시선이 덧붙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쳐-「벌레 이야기」, 「비화밀교」를 중심으로, 『작가세계』(4권3호), 1992, 133면) 한편 이수형은, 「벌레 이야기」속 아내가 용서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를 교환 관계의 비대칭성에서 찾는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애초부터 비대칭적인데, 아내가 이를 끝내 납득하지 못함으로써 “교만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교환 관계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37-142면 참조) 강숙영은, 「비화밀교」의 핵심이 “종교 본연의 의미를 왜곡하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려는 사제 도덕의 모순”에 있다고 언급한다. (「비화밀교」에 나타난 ‘밀교’ 의식의 의미, 『비평문학』(76), 2020, 8면 참조)

- 17) 황현산, 「정지된 세계의 알레고리-『자유의 문』, 『이청준론』, 위의 책, 313-317면 참조. 덧붙여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강준수는, 현실 속 인간의 문제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함을 역설하며 비극적 결말의 주된 원인을 신에 둔다.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 나타난 ‘용서’에 대한 고찰」, 『문학과 종교』(21), 2017, 67-71면 참조) 이평전 또한 「벌레 이야기」가 “국가-종교-윤리에 감춰진 폭력의 정치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국가 및 종교의 억압적 윤리 체제를 더욱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1980년대 소설에 재현된 ‘용서’의 정치학」, 『영주어문』(46), 2020, 144면)

셋째는, 위의 상반된 두 시각의 유연한 병합으로, 신의 부정성과 인간의 유약함에 함께 책임을 묻는 경우이다. 류보선은, 계율이 현실적 근거를 잃었을 때 그것은 “현상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죽은 형식”이 되며, 이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인간 또한 “광기의 이성”에 다름 아님을 이야기한다.¹⁸⁾ 이와 같은 언급은 신과 인간의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의 넓이와 깊이를 겸하여 텍스트에 접근해야 할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계율이 부정성을 띠는 주요 원인을 인간의 과도한 집착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방향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이 글은 신이 자체의 형식 및 구조 안에 어떤 비정합성 혹은 비일관성과 같은 증상적 지점을 애초부터 담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비극적 결렬의 핵심 원인이 된다고 보는 반면, 위 연구는 계율의 절대화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의 지나친 고집이 계율 본래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존 연구와의 비교 및 검토는 논의의 방향과 차이를 짚어가는 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는데, 이 글의 연구 내용을 본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의 구체적 형식으로서의 계율은 만유를 향한 신의 뜻을 하나의 명령으로 법칙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 주체로 하여금 신의 존재를 실체적으로 감각하게 한다. 다시 말해 계율은 곧 신의 범형(範型)이자 그 자신의 추상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현시(顯示)인바,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자유의 문』에 나타난 신의 형식을 다음의 계율들로 간명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벌레 이야기」), ‘비밀의 형식을 고수하라.’(「비화밀교」), ‘스스로를 익명화하라.’(『자유의 문』)

앞서 밝혔듯이 신 혹은 신의 뜻의 범형인 이 계율들은 각각의 텍스트에서 인간이 신의 편으로 도약하고자 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

18) 류보선, 「자유라는 이율배반: 이청준의 『자유의 문』, 『또 다른 목소리들』, 소명출판, 2006, 312-321면 참조.

의 문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놓인 이 계율의 문을 여는 일은 사실상 어떤 ‘금지’를 받아들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금지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이성적인 관점에서 사고 돼오던 영역 전반에 해당한다. 즉, 계율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¹⁹⁾인 것이자 애초부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²⁰⁾는 것이기에, 그 실천 방식에 있어 인간의 모든 정념적인 추동은 배제할 것을, 오직 신의 뜻에 의해 동기화될 것만을 허락하는 것이다.

— … 우리는 당신의 깊으신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당신의 뜻에 따라 복종을 하나갈 의무밖에 없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종이 된 우리 인간들의 의무인 거니까요. (『벌레 이야기』, 170면)

“글쎄…… 그게 폭발에 대한 기다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이단이지. 여기서 어찌면 기다림 자체로써 행위와 목적이 완성되어져 온 셈이니까. 그저 기다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 밀교의 교단과 예배는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거든.” (『비화밀교』, 107면²¹⁾)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주님에의 믿음을 위하여 인간에의 믿음을 버리는 일처럼도 보였다. 자신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고,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음을 곧 인간에의 길을 닫아버리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 인간에 대한 믿음과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는 같았다. … 그것은 누구보다 세례자 요한의 길을 숭상하고 그것을 전도의 교리로 삼고 있는 이들 교회(그것은 차라리 하나의 교단이라 할 수 있었다)의 절대계율이

19) 이청준, 『자유의 문』, 열림원, 2008, 175면. (이하의 인용은 괄호 속 표기)

20) 이청준, 『벌레 이야기』, 『벌레 이야기』, 열림원, 2011, 152면. (이하의 인용은 괄호 속 표기)

21) 이청준, 『비화밀교』, 『벌레 이야기』, 열림원, 2011, 107면. (이하의 인용은 괄호 속 표기)

었다. (『자유의 문』, 181면)

앞의 맥락과 관련하여 인용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핵심적 단어들이다. ‘복종하라’, ‘기다려라’, ‘부인하라’. 이 세 서술어는 앞서 제시한 세 개의 계율을 이행하는 실제적 능동태이자 금지의 구체적 명령어 이거니와, 이는 바로 다음과 같은 자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벌레 이야기」에서 이웃 사랑에의 계율은 신이 내린 결정을 순전히 반복하는 주체의 ‘복종’으로 구성된다. 「비화밀교」에 나타난 비교(秘敎)로서의 밀교는 끝끝내 폭발을 지연시키는 ‘기다림’의 형식 속에서만 존재한다. 『자유의 문』에서의 자기 익명화 또한 주체가 자신의 인간됨을 철저히 억누르고 ‘부인’하는 가운데 수행된다. 이렇듯 각각의 텍스트에서 계율과 관련한 세 개의 핵심적 서술어가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감정의 발로인 일체의 정념성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오직 신(계율)이라는 순수 형식만이 자리하게 할 것을, 그리하여 그 순수 형식이 곧 주체의 모든 행위와의 동기 및 의지가 되게 할 것을 요청하는 지점이다.

계율에의 의무에 주체의 의지를 전적으로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의 이 같은 특성에 묘한 기시감이 든다면, 그것은 칸트의 정언명령 때문일 것이다.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나 또한 의욕 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렇게 처신”²²⁾해야 함을 이르고 있는 이것은, 준칙의 필연성이 법칙의 보편성에 합치하는 한에서만 주체의 의욕 및 행위를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도덕법칙의 범형인 정언명령은 법칙의 표상이 그 자체로 의지의 동인이 될 것을, 그리하여 주체의 모든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 동시에 오로지 의무만을 위해 이루어질 것을 지시하는 윤리성의 명령인바, 기실 이는 인간 안에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모두 비워내고 주체 자신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의 형

22)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2, 94면. (IV402·B17)

식으로 규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의 범형인 계율과 동궤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계율에 숨은 증상적 지점들

“의지가 도덕법칙에 완전히 부합함”²³⁾으로 간명하게 정의되는 칸트의 최고선은,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는 “신성한 의지”체로서의 신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²⁴⁾ 그러나 대상에 대한 쾌 혹은 불쾌에 따라 의지가 촉발되게 마련인 인간 본연의 경향성은 선형적 대상 그 자체인 최고선과 신을 뒤따르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며, 앞 절에서 언급한 세 개의 핵심적 단어들—복종하라, 기다려라, 부인하라—은 모두 그와 같은 방해의 지점들을 일소하기 위한, 그리하여 주체 내부를 오직 투명한 의무로서 채우기 위한 일종의 정언명령이자 계율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칸트의 정언명령 및 신의 계율은 인간 본래의 구명인 정념과 무지로부터 인간을 구하고 완전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대적 선에 기초한다. 따라서 인간 주체에게 있어 이 명령 또는 계율은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필연적 실천 명령”²⁵⁾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리하여 주체가 이를 자신의 내면적 골격을 구성하는 제일 원칙으로 삼을 때, 이성과 충동의 각축장으로서의 세계는 이제까지의 “모든 세속의 질서”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법칙 아래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의 힘을 이루는” “용서의 자리”(『비화밀교』, 85면, 104면), 곧 비-정념성의 세계로 화하게 되는 것이다.

23)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역, 앞의 책, 127면.

24) 임마누엘 칸트, 백중현 역, 위의 책, 118면. (IV414 · B39)

25) 임마누엘 칸트, 백중현 역, 위의 책, 51면.

그러나 이 지점에서 오래전 자크 라캉이 「사드와 함께 칸트를」(Kant with Sade)에서 보여준, 칸트의 도덕법칙에 관한 주목할 만한 지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선(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일체의 정념성을 비워낼 것을 요구하는 이 엄격한 법의 형식 속에 잔인하고 외설적인 사드의 얼굴이 감춰져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칸트 윤리학의 숨겨진 진실이 초자아 사디즘이라는 것”²⁶⁾으로, 라캉의 이 같은 언급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사실상 “주체의 행복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체의 행복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²⁷⁾ 인간을 인격적 존재자의 위치로 끌어올려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칙이 당위(當爲)라는 이름 아래 그 어떤 미만이나 초과도 불허하는 식으로 엄격하고 완강하게 존립할수록 주체의 심적 경제 안에서 이 명령은 그 자신의 좌절과 실패를 유도하는, 그리하여 주체를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 빠뜨리는 “사디스틱한 고문자”²⁸⁾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칸트적 선의 표상 뒤에 이렇듯 심술궂은 사드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음을 적시한 라캉의 지적은, 정언명령과 동궤에 있는 계율뿐만 아니라 이제껏 감춰진 채로 있었던 신의 그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도 관점의 방향을 달리하게 하는 결정적 표지가 된다. 인간 본래의 한계에 따른 불가해성의 영역이 아니라 절대적 순수 형식 끝에 숨은 자체의 비-정합적 지점으로서 말이다. 하여 이러한 시각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앞서 작품별로 간명하게 제시한 각각의 계율들을 표제 삼아 그 증상적 지점을 순차적으로 짚어 보고자 한다.

26) 슬라보예 지젝, 이재환 역, 『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 b, 2010, 303면.

27)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위의 책, 459면.

28) 슬라보예 지젝, 이재환 역, 위의 책, 304면.

1) 네 이웃을 사랑하라 : 「벌레 이야기」

주지하다시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인간 본연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인간 안에 화평과 유대를 심어주고자 한 신의 섭리가 규범화된 것이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계율이 겨냥하고 있는 이웃의 실제이다. 이는 조화로운 완전체로서의 얼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한 “트라우마적 사물”²⁹⁾로서의 얼굴, 예컨대 뜻밖의 상황에서 드러난 내 이웃의 삶과 뼈 그리고 피의 지점을 일컫는바, 최초의 층위에서 이에 정확히 상응하는 인물은 주산 학원 원장인 김도섭이다. 그는 “알람이가 안심하고 뒤를 따라나설 만큼”(146면) 친숙하고도 평범한 우리 이웃의 얼굴을 가장한 채 자신의 끔찍한 욕망을 내키는 대로 풀어헤쳤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살인귀 악마”(153면)라고 할 만한 자이기 때문이다. 하여 신의 대변인 격인 김 집사가 “그를 용서하고 동정을 할 수도 있어야”(157면) 함을 이야기할 때, 이 이웃 사랑에의 계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의 연쇄 고리를 끊고 보다 능동적인 자기 한정을 통해 스스로의 경향성을 넘어설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율이 자체의 증상성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은 신이 아내보다도 먼저 김도섭의 죄를 사하면서부터이다. 김도섭이 아내 이전에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즉 신의 ‘앞선’ 용서는 아내가 목적인 용서의 대상과 의미를 일시에 소거함으로써 계율 속 이웃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한다. 신의 용서를 통해 “누구보다 깨끗한 영혼”으로 거듭난 이상 김도섭은 “아내와도 똑같은 ... 아들딸”(166면)일 뿐 비인간적 타자로서의 이웃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이웃 사랑에의 계율은 “복수의 표적”(155면)뿐만 아니라 이제는 “용서의 표적”(171면)마저 잃게 된 아내의 무참한 마음 안에서 급격히 표류하게 되

29) 케너스 레이너드 외 2인, 정혁현 역, 『이웃』, 도서출판 b, 2010, 225면.

는바, 이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아내를 다음의 물음과 마주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증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은 아내보다 앞선 용서를 통해 괴물-이웃으로서의 김도섭의 자리를 이미 소거하였는바, 아내로 하여금 행위 할 것을 명령 해놓고 그 행위의 지점을 모두 무화한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아내를 향한 신의 이 계율에 숨은 진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가 나를 용서한다구요? 게다가 주님께선 그를 먼저 용서하시구……. 하긴 그게 아마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질투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고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당신이 내게서 그를 용서할 기회를 빼앗고, 그를 먼저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용서케 하시고…… 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 … (「벌레 이야기」, 170면)

앞선 용서로 하여 아내 고유의 (용서의) 권리를 잃게 한 것에 더해, 이제는 이 살인자 앞에 거꾸로 자신의 저주와 복수의 마음을 사죄케 함으로써 (용서의) 주체로서의 자리마저 내놓을 것을, 그리하여 마침내는 아내 그 자신을 (용서의) 대상의 자리로 역이동시킬 것을 이르는 이 복종의 명령이 진정 주님의 ‘공평한’ 사랑인지를 되묻는 위 대목은, 결코 헤아릴 길 없는 신의 섭리에 대한 무지한 인간의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는 신에 대한 깊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일종의 불만인바, 이 같은 상황은 본래적 비(非)인간이며 절대적 타자 그 자체인 신의 위상을 새삼 깨닫게 함으로써 이제껏 살인자 김도섭과 아내 사이에 놓여 있던 이웃 사랑에의 계율에 전혀 다른 시각을 환기한다. 그것은 아내가 사랑해야 할 궁극적 대상이 김도섭이 아닐 수 있음을 일깨우는 시각으로, 사실상 신을 그 절대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재조명할 것을, 다시 말해 계율 속 ‘이웃’의 자리에 신 그 자신을 위치하게 할 것을 뜻하는 도착적 명령의 지점이다. 알람이의

참사로 이미 “세상이 끝난 것 한 가지”(147면)인 아내 앞에 차라리 용서가 더 쉬울 법한 실천 불능의 선택을 내밀고 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절대적 믿음의 증거로서 요구하는 신. 그가 내보이는 이 가혹함은 분명 조화롭지 못한 것이자 신 안에 있는 신 이상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지점인 바, 이제 아내는 신의 이 끔찍한 타자성—범(계율)의 엄격함을 넘어 어떠한 인간적 범죄보다 한층 더 잔인한 층위에 있는 신의 이 숨은 반쪽—을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이야말로 “나에게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불가해하며 수수께끼 같은 불활성의 현존”³⁰⁾이라는 점에서 원초적이며 최종적인 이웃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밀의 형식을 고수하라 : 「비화밀교」

이 글이 「비화밀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왕산(帝王山)에서의 제의를 둘러싼 그 절대적 비밀의 형식이다. 설날그믐날 밤이면 고향인 J읍에 있는 제왕산에 올라 횃불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함께 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안부를 묻다가 새해를 알리는 자정이 되면 장화대(藏火臺)에 불을 묻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이 단순한 행사는, 그러나 첫 만남에서부터 반복해서 비밀 유지를 당부하는 조 선생(조승호)으로 인해 평범한 듯 보이는 민속의 외양 너머로 “어떤 음습한 음모의 기운 같은 것”(67면)을 감지하게 한다. 문제는 제의의 목적과 역할에 관한 조 선생의 설명이 거듭될수록 ‘나’(이정훈)의 이 미심쩍은 느낌은 점차 해소되는 게 아니라 외려 더욱 분명한 물음들로 꼬리를 문다는 것이다. 하여 대답이 또 하나의 의문으로 이어지는 이 치열한 대화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나’는 더더욱 그 의미를 쉽사리 납득할 수가 없게 되는데, 눈여겨봐야 할

30) 케너스 레이너드 외 2인, 위의 책, 225면.

점은 이렇듯 모든 것이 모호한 문답의 와중에도 ‘나’가 단 한 가지만은 “이미 … 분명해진 것”(117면)으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이 모든 궁금증과 의구심의 뿌리에 “소망의 증거랄 수 있는 폭발을 이상하게 두려워”(110면)하며 “절대 비밀의 유지”만을 “고집”하는 “조 선생의 신념과 확고부동한 태도”가 놓여 있다는 바로 그 점 말이다.

… 그 엄청나게 가열스런 정신주의…… 나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쉽사리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다. … 하지만 그런 것은 뒤로 체쳐두고 내게는 이미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 선생의 신념과 확고부동한 태도였다. … 그는 한사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뒤에 숨은 그림자의 세계 속에서 그 힘과 꿈의 질서에 봉사하며 그쪽에 관여된 삶의 부분들은 영원한 침묵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비화 밀교」, 117-118면)

‘나’의 의문의 한복판에 모든 것을 비밀에 부칠 것을 당부하는 조 선생의 이상스러운 고집이 자리해있다는 사실은 이 글이 그 비밀에 관해 더욱 주목하는 필연적 이유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조 선생의 이 같은 태도는 “비밀의 덕목과 거기에 대한 자신의 믿음”(115면)에서 비롯한다. 오직 비밀이라는 금지의 장막 속에서만 이제껏 밀교(密敎)를 통해 가꾸어 온 힘의 신성성 및 영속성이 변질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 선생이 그토록 “숨겨 간직해 이어가려는”(112면) 그 절대적 비밀이 요컨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능치듯 “정곡을 비켜두려는”(105면) 그의 확연치 못한 태도는 비밀에 숨은 어떤 공백의 지점을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속의 질서가 사라지고 그저 한 가지 이 산 위에서만의 간절한 소망으로…… 나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오직 한 가지 소망으로 자신을 귀의 시켜, 그 소망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탄생시키고, 그것을 지켜가는 숨은 근거지가 되고 있는 셈이지…….” (85면)

“앞서도 말했지만, 그 역시도 분명한 건 말하기가 어렵겠지. 나도 또한 그때는 어떤 간절한 소망 속에서 뜨겁고 무거운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으로선 그걸 경험했다는 사실뿐 다른 설명이 불가능 하거든. 도대체 그건 누구도 입에 담아 말을 한 일이 없었으니까…….” (106면)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밀교는 그야말로 그 ‘무엇’, 즉 소망과 기다림 이라고 하는 오래된 추상어들을 구체화할 만한 실제적 참조점을 갖지 못한 것, 하여 ‘사례’³¹⁾나 ‘비유’³²⁾ 등으로 돌려 말하는 것 외에는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비밀로써 규제하고 있는 밀교의 목적 및 의미가 아직 주어와 술어로 결합 된 하나의 명제로 표현될 수 없으며 오직 상징이나 암시 등을 통해 짐작될 수만 있음을 뜻한다.³³⁾ 따라서 한사코 ‘나’에게 밀교에 관한 발설을 금하며 절대적 비밀을 고집하는 조 선생의 태도는 사실상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을 필사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중의 금지로서이다. 그리고 금지의 이 같은 이

31) 이는 조 선생의 중학교 시절,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인 교장의 횡포에 “응용 소리”로 대항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기 값”을 지키고자 했던 일을 가리킨다. (『비밀교』, 108-109면)

32) 조 선생은 밀교를 “소망의 웅달샘”, 즉 “가뭄에 상관없이 언제나 수맥이 끊기지 않고 땅속을 적서 흐르는 숨겨진 샘”에 빗대어 표현한다. (『비밀교』, 118-119면)

33) 밀교의 이러한 특징은 여타의 종교와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교가 이른바 열반에의 도달을 기독교가 메시아의 강림을 분명하게 소망하거나, 밀교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라는 뚜렷한 목적성을 지닌 반면, 조 선생이 추구하는 밀교는 이 같은 구체성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서 있기 때문이다.

중적 형식은 그 자체로 조 선생의 강박적 면모를 드러내는 유의미한 지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적인 맥락과 관련하여 더욱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비화밀교」 속 비밀을 보다 증상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게 하는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철저히 비밀로써 간직해 온 밀교의 “간절한 소망”이 실은 말할 수 없는 것, 즉 언표 불능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점은 이 비밀의 형식을 사실상 ‘내용 없는 금지’로서 정의하게 하는바, 이 금지가 온전한 하나의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의 자리에 해당하는 정확한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무엇’, 즉 밀교의 목적 및 제의의 소망은 본래부터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역설적이게도 주체가 그 비교(秘敎)의 형식을 깨고 스스로를 외화 하는 현실적 행위의 순간을 통해서만 구성된다. 집단적 제의가 만들어 낸 “소리의 덩어리”(88면)나 “뜨겁고 신비로운 힘”(89면) 등이 어떠한 기표로 정식화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이를 현실 속에 기입 하는 주체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듯이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비밀이 완전한 법칙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때는 또한 그 형식이 마침내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거니와, 그러나 조 선생은 밀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기다림이라는 영원한 침묵에 뒹뒹으로써 자체의 원 안에 갇히고 만다. 그리하여 계율은 밀교의 공백을 가리는 일종의 베일이 되고 마는바, 바로 여기에 이 계율의 증상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³⁴⁾

34) 「비화밀교」에 관한 이러한 분석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한 심사자의 유의미한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해당 의견은 ‘비밀의 형식을 고수하라’는 계율이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의 명령이라기보다, 인간의 의지와 소망이 만들어 낸 형식에 더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는 계율의 부정성을 신의 증상적 지점으로 해석한 본 연구가 포괄하지 못한 지점이자,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에 따를 때 「비화밀교」에 관한 이 글의 내용은 본 논문의 방향과 일정 부분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계율을 둘러싼 이 층위의 근본적인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지점을 지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완적 시각으로서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3) 스스로를 익명화하라 : 『자유의 문』³⁵⁾

백상도가 절대 계율의 추상적 의무를 실제적 행위로 이행 해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혼자 행”해야 한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단 한 분—“오직 주님 이름으로”(180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는 인간적 욕망에 대한 철저한 배제이자 자신에게 부여된 상징적 위임 뒤로 스스로를 익명화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거니와,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윤리적 명령(계율) 속에 본래부터 내재 되어있는 ‘실패’의 지점이다. 법 또는 의무에의 요구에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주체는 결과와 관계없이 언제나 그 끝에서 실패와 마주한다는 것, 더욱이 이러한 실패가 애초부터 그 명령의 형식 속에 기입되어 있다는 것인즉, 이 같은 필연적 실패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³⁶⁾ 만약 주체가 S1(법 또는 의무)의 요구에 따라 모든 인간적인 정념성을 털어내고 자신을 “어떤 추상적 규정성으로 환원”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남는 것은 S1의 “대행자agent”이자 도구로서 한없이 축소된 주체뿐일 것이다. ① 반대로 주체가 S1의 요구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다면, 주체는 “언표 주체와 언표행위 주체의 분열” 속에서 초자아적 사드의 얼굴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주체를 명령에의 충실성과 이에 대한 의구심 사이에 세워놓고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 빠뜨리는 “악한 중립적 관찰자”의 심술궂은 얼굴 말이다. ②

이청준은 백상도라는 한 의지적 인물을 통해 이 같은 실패의 두 맥락을 명확하게 그려내는데, 이를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이 절의 주된 논의는 앞서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줄고, 「이청준 문학에서의 죄와 주체의 윤리」, 한양대 박사논문, 2022, 158-165면). 그러나 이 글은 백상도의 과국이 단순히 한 인간의 비틀린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율 자체의 증상적 지점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내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36) 이어지는 풀이는 지젝의 다음의 두 책을 참고했다. 슬라보예 지젝, 이재환 역, 앞의 책, 300면, 304면;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앞의 책, 459-460면 참조.

아니, 그보다 정완규 스스로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눌러 남아 있는 것은, 그가 아직도 자신의 계획을 단념해버릴 수가 없었던 때문이었다. 아닌게아니라 그는 영섭의 짐작대로 성 기자의 죽음까지 자신의 계획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그래 그 죽음이 헛된 희생이 되지 않고 광산촌 사람들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 값진 선물이 되게 할 과업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같은 과업의 수행을 위해서 정완규는 계속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사고의 뒤처리에 적극 끼어들고 싶어한 것이었다. (230면)

… 내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무력감 속에 회의와 의구심만 자꾸 더 늘어가고 있었지요. 나는 정말로 자신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가. 사람의 일을 사람 앞에 말하는 것이 어째서 죄악인가. 사람이 사람의 일을 스스로 증거하지 않고 침묵 속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기다리고, 당신을 통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또한 실제로 가능한 일일 것인가…….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새 힘을 간구하는 기도도 많았지요. 그건 아무래도 내 기도가 모자란 탓이었으니, 주님께서 새 믿음의 힘을 빌려주십시오요. (233-234면)

백상도(정완규)는 “잔인스러울 정도로 굳고 철저”(227면)한 자기 신념과 소명의 의식 속에서 성 기자의 죽음마저 “주님의 역사”를 위한 “과업”으로 여긴다. 자신이 초래한 어처구니없는 참사 앞에서 마땅히 느끼고 겪어야 할 인간적 주저와 죄책의 지점을 “대타자-신의 불가피한 의지가 자신에게 부과된 것”³⁷⁾으로 봉합함으로써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도구화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제 눈과 귀를 제 손으로 닫아버리며 무두(無頭)의 존재가 되길 자처하는 것인바, 그의 이 같은 모습은 환원예의 성공이 오히려 주체에의 축소 및 실패로 귀결되는 ①의 맥락을 뒷받침한다.

이후 그가 “침묵의 계율”(233면)과 “증거의 충동”(239면) 간의 갈등을

37) 조운 콕재, 김소연·박계철·정혁연 역,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도서출판 b, 2015, 376면.

타협 짓기 위해 강구한 유인 살인은, “완전한 자기 익명화”(236면)라는 그 불가능한 요구에 본래부터 내재 되어있던 증상적 지점이 한 인간의 미망(迷妄)과 함께 기괴한 범죄의 양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오직 주님 단 한 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 절대적 “자기 지움”(176면) 외에 사실상 아무런 구체적 지침도 없는 이 명령은 따라서 그 빈 내용의 자리를 어떠한 책무로 채워 넣을 것인지를 전적으로 주체에게 맡긴다. 문제는, 당연하게도 인간은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³⁸⁾해 있는 신이 아니기에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이 텅 빈 법칙에 물음 부치는 식으로 끊임없이 검열해나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주체의 불확신과 회의—“나는 정말로 자신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가. … 그것이 또한 실제로 가능한 일일 것인가…….”—는 결국 이 법칙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무력감 속에 회의와 의구심만” 늘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의혹과 충동이 곧 “내 기도가 모자란 탓”이라며 끊임없이 죄책감을 일게 하는 “주체 분열의 원인으로서의 기표”³⁹⁾, 즉 초자아의 형식으로 마주하게 하는 것이다.

계율의 초자아화, 본 계율의 증상성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으며, 백상도의 살인 행위는 이 순수 명령에 숨겨진 증상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유인 살인은 계율에의 명령과 이에 대한 인간적 회의에서 오는 의식의 분열을 피하고, 침묵의 계율에 부합하고자 할수록 “나약한 인간성”(235면)만을 절감하게 하는 이 본래적 틈을 메우기 위한 도착적 방편에 해당하는바, 이렇게 볼 때 그의 살인은 단순히 발화에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차오르는 인간적 욕망을 타자의 귀를 빌려 깨닫기 비워내고 다시금 법 앞에 순연히 서기 위한 것에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살인이야

38) 임마누엘 칸트, 백중현 역, 앞의 책, 118면. (IV414·B39)

39)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앞의 책, 467면.

말로 ... 기도의 한 방법”(256면)이 되어버린 이 같은 상황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지만 또한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절대적 법의 응시가 주체를 얼마만큼이나 망상과 분열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실패가 된다.

4. 윤리적 동인(動因)으로서의 주체

앞 장에서와 같이 몇 개의 계율을 표제 삼아 신의 증상적 지점을 짚어 보는 일은, 계율이라는 단단한 문 안에 이제껏 난공불락의 성채처럼 자리해 온 신적 세계를 인간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삶의 실제 속에서 되새겨보고자 한 작자의 의지를 반영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계율과 이에 복속된 인물 간의 결부 양상을 살펴본 앞서의 탐구는 이청준이 문학을 통해 견지해 온 주체와 세계 간의 윤리적 관계의 향방을 역으로 가늠하게 하는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 장에서는 세 작품의 공통된 구도인 대립적 인물군을 짚어봄으로써 주체를 주체로서 구원하고자 한 이청준식 윤리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벌레 이야기」의 김 집사와 『자유의 문』의 백상도, 그리고 (이들보다 다소 완화된 양상이기는 하나) 「비화밀교」의 조 선생은 ‘진정한 윤리적 순수성’과 자신을 타자의 도구로 만드는 ‘거짓된 초자아의 순수성’ 간의 대립에서 대체로 후자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김 집사는 아내가 맞닥뜨린 비극이 궁극적으로는 신의 “사랑의 시험”(161면)임을 역설하며 죄인에 대한 용서(사랑)를 통해 이 단계이자 관문을 넘어설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녀의 이 같은 발언은 공교롭게도 그녀 자신이 타인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아내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높이고자 하는 도착적인 욕망마저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을 구체화한다.⁴⁰⁾ 김 집사의 도착증적 태도는 백상도에

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백상도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보다 큰 사랑을 위해 마련된 “그 사랑의 힘의 방편”(252면)으로서의 계율을 오히려 목적 그 자체로 전도시킨다. 이를테면, “만약 당신이 진실하다면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언을 뒤집어 “만약 죽음을 원한다면 당신은 진실되다”로 이행하는 것처럼 말이다.⁴¹⁾ 그리하여 “행위의 계율이 행위의 목적을 완전히 압도”(253면)한 그 도착적인 절대화 속에서 그의 모든 행위는 오직 타자 하나만을 위한 찬가가 되며, 이로써 자신 또한 타자를 위한 도구가 된다.

기다림이라는 영원한 침묵 속에 모든 것을 묻어두기를 고집하는 조 선생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평형을 교란할지도 모를 어떤 상황과의 대면을 피하고자 ‘비밀’과도 같은 특별한 의례 및 금지로서 대상과의 마주침을 무한정 연기하는 강박증자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기다림 자체를 행위와 목적의 완성으로 삼으며 그 외의 것은 모두 “이단”(107면)으로 규정하는 그의 독단적인 태도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그것은 어떤 가능성으로서의 삶의 과잉, 즉 뭔가가 정말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과의 조우인바, 이러한 이유로 조 선생은 “특별한 유형의 살아 있는 죽음”⁴²⁾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40) 이 같은 시각은 리처드 세넷을 참고했다. 그는, “기독교적 사랑은 타자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자에게 무관심하며 어떤 의미에서 타자를 이용”함을 지적한다. “타자에 대한 그 같은 헌신 밑에 있는 것은 증어를 통해 자아의 결핍을 메우려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리처드 세넷, 유강은 역,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문예출판사, 2008, 180면) 이에 덧붙여, 기독교적 사랑의 진정성을 비판한 아렌트의 언급 또한 참조할 수 있다. 아렌트는 기독교인에게 있어 “각 사람은 단지 신을 사랑하는 하나의 계기일 뿐”이며, 심지어 그 사랑이 “원수와 죄인조차도 다만 사랑의 계기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참극 이후 아내가 당면한 비인간적 이웃에 대한 용서(사랑)가 궁극적으로는 신에 가닿기 위한 기회이자 시험임을 강조한 김 집사의 발언은 이 같은 아렌트의 시각을 명확하게 뒷받침한다. (한나 아렌트,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텍스트, 2013, 170-171면 참조)

41)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앞의 책, 162면.

42) 레나타 살레클, 이성민 역, 『사랑의 증오의 도착들』, 도서출판 b, 2003, 111면.

앞서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청준은 신의 숨은 반쪽을 향한 그 애타는 시선을 인간들 각자의 삶으로 거두어들여 그 삶의 열심 속에서 스스로 나머지를 완성해 나가는 윤리적 책임의 자세를 강조하였거니와, 위의 인물군과 구도상 대척점에 있는 다음의 인물들—「벌레 이야기」의 아내, 「비화밀교」의 나(이정훈), 그리고 『자유의 문』의 주영섭—은 각자의 위치에서 작자가 추구해 온 주제 및 윤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

… 그가 그토록 증거를 반대하는 것은 그로 인한 현상적 지배 질서의 영합을 스스로 경계하려는 데에서였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단 한번의 소망의 증거와 폭발로써 그 꿈의 불운한 노출과 소멸만을 초래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쪽이었든지 간에 … 그는 한사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 영원한 침묵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어쨌든 존경할 만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가열한 정신주의의 미덕일 수도 있었다. 나는 계속 침묵 속에 무심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삼스레 무슨 선부른 말참견을 하고 나설 수도 없었다. 뭔지 아직도 가슴속에 미심쩍게 꿈틀대고 있는 것이 도대체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117-118면)

먼저, 나(이정훈)는 조 선생의 그 “가열한 정신주의”를 일정 부분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쉽사리 확신”하지 않거나, “가슴속에 미심쩍게 꿈틀대고” 있는 어떤 물음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나의 이러한 태도는, ‘폭발’(증거)은 필연적으로 “현상적 지배 질서” 속으로 다시 떨어지는 중간적 계기가 될 뿐이며 따라서 결국 “그 꿈의 불운한 노출과 소멸만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내세우는 조 선생의 고집, 바로 그 뒤에 숨은 ‘체념적 보수주의’에서 비롯한다. 나의 소설이나 〈아기장수 이야

가) 가 그러하듯 어쨌거나 이야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의 드러남과 이후 그것을 “헐떡헐떡 감당해 나가는 노릇”(133면)으로서의 삶의 과정, 이 두 지점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조 선생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어떠한 급진적인 변화도 상상하기를 거부한다. 큰 틀은 바꿀 수 없으리라는 것, 더 나쁜 것과 맞닥뜨리느니 차라리 나쁜 것이 낫다는 식의 그의 체념이 사실상 기존 질서의 존속에 기여하고 있는바, 조 선생에 대해 반복해서 드러내는 나의 불확신과 미심쩍음은 그의 이 같은 태도를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더욱 문제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대상 및 세계에 대한 의문을 끝까지 견지해 가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벌레 이야기」 속 아내에게도 해당한다. 신이 이미 마련한 용서를 순전히 반복하는 행위로서의 복종이 그녀 자신의 순교를 입증하는 도구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의 타당성 및 공평성을 되묻는 아내의 물음—“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은 신의 명령을 종교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인 측면에서 되짚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전복적인 성격을 갖는다.

두 인물의 이 같은 태도가 보다 분명한 윤리성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자유의 문』의 주영섭에서이다.

“...소설이 그 계율을 버리거나 바꾸는 것은 ... 그것은 차라리 소설의 파탄이나 멸망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말외다.”

“그것은 소설의 파탄이 아니라 오히려 재탄생이며, ... 우리의 삶과 정신의 자유, 나아가 그 소설 자체의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소설이 그의 기성의 계율을 바꾸거나 버리는 것은, 그것으로써 그 소설 자체가 하나의 변화의 징후, 그 징후의 기호로서 보다 더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로써 소설은 그 전향적 창조성 속에 계속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더 나은 삶과 세계의 질서, 바로 자유의 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263면)

위 인용문은 백상도와 주영섭 두 인물이 지닌 계율에 대한 자세를 핵심적으로 보여준다. 백상도는 계율의 외부 또는 명령의 바깥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에게 있어 그것은 “파탄이나 멸망”이며 세계의 끝이다. 백상도의 이 같은 태도는 특유의 “경직성”⁴³⁾으로 인해 주영섭이 보이는 ‘윤리적 유연성’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주영섭은 문학이 자체의 타성과 상투성에 젖어 어떤 절대화의 길로 빠져들 때, 그리하여 이제껏 자기 실존의 토대였던 것이 하나의 파열이나 억압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누리거나 돌아서”(262면)는 식으로 조용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증거와 도로의 끝없는 되풀이를 “소설의 숙명”으로 여기며 본래의 자리에서 “새로운 증거를 행해 나갈 준비”(263면)를 서두름으로써 그 균열의 한복판을 의연하게 관통한다. 진실이 하나의 굴레가 되고 증거가 이내 질서로 굳어지고 미는 현상 세계의 “목은 틀을 서슴없이 벗어던”(261면)지고 계속해서 사라짐과 다시 태어남을 반복하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소설이 “자유의 질서”를 향한 “변화의 기호”가 되게 하는 것이다. 주체의 이 같은 윤리적 선택과 실천을 통해 비로소 소설은 “파탄”이 아니라 “재탄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바, 그렇다면 주영섭은 단순히 “보편적인 것(법/계율)의 대행자 agent가 아니라 그것의 동인 agents”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인 것의 이름 또는 그 위임만을 앞세움으로써 사실상 명령을 대리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백상도와 달리, 주영섭은 자신이 직접 “보편화의 계기, 법을 구성 혹은 규정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새로운 보편성의 귀환을 성취해 나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⁴⁴⁾ 그리하여, 보편적인 것의 구성과 그것의 윤리적 작동 과정에 있어 주영섭이 보여준 주체적 역할과 의지는,

43) 도착증자가 법에 대해 맺는 관계에는 어떤 모호함이나 주저함이 없어 “상징적인 결속 보다는 계약의 성격을 갖는다. 계약은 사태를 분명히 나타내며 애매함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법보다 더 엄격하고 경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직성이야말로 프로이트가 도착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운 콕색, 앞의 책, 369면 참조)

44) 알렌카 주관치치, 이성민 역, 앞의 책, 104면. (괄호 속 설명은 인용자)

신의 불가해성과 인간의 윤리적 자각이 교차하는 경계 위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구원의 윤리를 구성하고 그 책임을 감당 해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는 신의 숨은 반쪽을 더 이상 신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서 찾고 이를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방식으로 완성하기를 바랐던 이청준 식 주체 및 윤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가며

이 글은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자유의 문』을 중심으로 신의 형상 및 그 범형으로서의 계율이 어떠한 구조와 형식을 띠며, 그 안에 내재한 증상적 지점이 주체의 윤리와 어떤 방식으로 맞물리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신을 구원과 안식의 궁극적 보증으로서 이해해 온 오랜 관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반쪽' 혹은 '수수께끼'로서의 신, 그리고 그 불가해성이 인간의 삶 한복판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다.

논의의 출발점은 이청준에게 있어 신이 결코 완성된 전능의 표상이 아니라, 인간을 끊임없이 뒤척이게 만드는 불안정한 형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의 모습은 구체적인 계율의 형식을 통해 인간과 조우하는바, 이때 계율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신의 추상성이 직접적으로 현시된 범형으로서 가능하다. 「벌레 이야기」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 「비화밀교」의 〈비밀의 형식을 고수하라〉, 『자유의 문』의 〈스스로를 익명화하라〉는 각각 신의 뜻이 명령으로 응결된 지점이자, 인간 주체가 신의 편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계율이 곧바로 구원이나 윤리적 정합성으로 이

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계율은 인간의 정념과 개별성을 배제한 순수 형식으로서 주체에게 요구되며, 바로 그 엄격함 속에서 인간 수준의 잔인함을 넘어서는 초자아적 면모를 드러낸다. 「벌레 이야기」에서는 신의 ‘앞선 용서’가 이웃 사랑의 대상과 의미를 무화시킴으로써 사랑의 계율이 오히려 주체를 절망과 배신감 속에 몰아넣는 작인이 된다. 「비화밀교」에서는 비밀이라는 형식이 말할 수 없는 공백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배열로 작동하며, 기다림의 계율이 목적 없는 금지로 고착된다. 『자유의 문』에서는 자기 익명화라는 신의 명령이 주체를 대행자나 도구로 환원하거나 반대로 끝없는 죄책감과 분열 속에 빠뜨리는 필연적 실패의 구조로 드러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이 밝히고자 한 것은, 계율이 결코 중립적인 규범이 아니라는 것, 형식 자체 안에 주체의 분열과 실패를 예정하는 증상적 지점이 내재 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신의 계율은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는 확고한 길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시험하고 압박하며 응답을 강요하는 수수께끼로 기능한다. 이때 신의 불가해성은 단순히 인간 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 형식으로서의 법이 지닌 구조적 비-정합성에서 기인한다.

그럼에도 이청준의 소설이 이러한 계율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계율의 절대적 형식에 내재된 균열의 지점을 더 이상 신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인간 주체가 감당해야 할 윤리적 과제로 전환한다. 특히 『자유의 문』의 주영섭은 계율의 대행자 *agent*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의미를 현실 속에서 다시 묻고 선택하는 동인 *agens*으로서의 주체로 형상화된다. 이는 주체가 보편적 명령을 단순히 반복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명령의 공백과 모순을 스스로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으로 짚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청준이 그려낸 신과 계율은 인간을 대신해 세계를 완성해 주는 초월적 보증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

임지계 만드는 윤리적 압력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계율에 숨은 증상적 지점을 직시하는 일은 곧 신의 자리를 비워내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인간의 윤리적 결단으로 다시 채우는 작업이다. 이청준의 문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신의 불가해성과 인간의 윤리적 자각이 교차하는 경계 위에서 주체의 가능성과 책임을 사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청준, 「노거목과의 대화」, 『시간의 문』, 열림원, 2000.
_____, 『자유의 문』, 열림원, 2008.
_____, 『가위 밑 그림의 음화와 양화』, 열림원, 2008.
_____, 「벌레 이야기」, 「비화밀교」, 『벌레 이야기』, 열림원, 2011.

2. 단행본

- 김치수 외, 『이청준論』, 삼인행, 1991.
류보선, 『또 다른 목소리들』, 소명출판, 2006.
리처드 세넷, 유강은 역,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문예출판사, 2008.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역,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다』, 인간사랑, 2007.
_____, 이재환 역, 『나눌 수 없는 잔여』, 도서출판 b, 2010.
_____,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지식하우스, 2015.
_____, 정영목 역, 『레닌의 유산: 진리로 나아갈 권리』, 생각의힘, 2017.
알렌카 주판치치, 이성민 역, 『실재의 윤리』, 도서출판 b, 2008.
임마누엘 칸트,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아카넷, 2012.
조운 콕젝, 김소연·박제철·정혁연 역, 『여자가 없다고 상상해봐』, 도서출판 b, 2015.
케너스 레이너드 외 2인, 정혁연 역, 『이웃』, 도서출판 b, 2010.
프리드리히 니체, 박찬국 역, 『도덕의 계보』, 아카넷, 2021.
한나 아렌트,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텍스트, 2013.

3. 논문

- 강숙영, 「비화밀교」에 나타난 「밀교」 의식의 의미, 『비평문학』(76), 2020, 7-32면.
강준수,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 나타난 「용서」에 대한 고찰」, 『문학과 종교』(21), 2017, 65-81면
김주연, 「이청준의 종교적 상상력」, 『본질과 현상』(14), 본질과 현상, 2008, 112-126면.
김효은, 「이청준 문학에서의 죄와 주체의 윤리」, 한양대 박사논문, 2022.
이수형,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교환 관계 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7.
이평전, 「1980년대 소설에 재현된 「용서」의 정치학」, 『영주어문』(46), 2020, 131-155면.

<Abstract>

The Form of Religious Precept and Ethics of Salvation in Yi Chung-jun's novels

Kim, Hyo-eun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God and the structure of commandments in Yi Chung-jun's novels to explore his religious worldview and conception of the ethical subject. In works, God is not presented as the traditional image that humanity has assumed as the ultimate guarantor of peace and rest; rather, God appears in a radically opposed form—as a “half-being” or a “stingy savior,” among others. Through this inversion, the divine commandment, as the archetype of God, is revealed not as an unconditional good but as a symptomatic form containing internal fissures and contradictions.

The forms of the divine commandment in the texts are concretized as “Love thy neighbor,” “Maintain the form of secrecy,” and “Anonymize thyself.” These reveal that the commandment exceeds the strictness of the law to a level of cruelty, operates as a veil concealing an inner void, and inscribes within its very form the inevitability of the subject's failure.

Through these negative moments within the absolute form of the commandment, Yi presents the ethical task as one that must be borne not by God but by human beings themselves. In 『The Gate of Freedom』, Ju Young-seop embodies this idea, not as a mere *'agent'* of the universal command but as its *'agens'*, enacting an autonomous ethical decision. At this intersection of divine incomprehensibility and human ethical

awareness, Yi's vision of the ethical subject and his orientation toward a new form of religiosity become distinctly manifest.

Key words: Yi Chung-jun, God, Religious Precept(Commandment), Subject, Symptom, Agens, Ethics

투 고 일: 2026년 2월 9일

심 사 일: 2026년 3월 9일

게재확정일: 2026년 3월 13일

수정마감일: 2026년 3월 28일